

1-4-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히브리서 12:18-29

말씀제목: 흔들리는 세상 나라들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시내 산이 불붙었고 캄캄함과 어두움과 폭풍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출 19:10-11)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먼 훗날 은혜 시대 이천 년(이틀)이 지나고 세 번째 천 년, 즉 일곱째 날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왕국을 지상에 세우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더 이상 시내 산에 이를 필요가 없으며 이제 그들이 이르는 곳은 하늘에 있는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찬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을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다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하여 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겨두시기 위함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을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는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세상 모든 나라들은 소멸케 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불로 모두 제거되고 오직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만이 영원토록 지상에 남게 될 것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멸케 하신 불로 하늘과 땅에 모든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는 심판의 날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벧후 3:3-7)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미리 보고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이 이를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 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 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접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벧후 3:10-15)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예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히 12:14-16)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습니다(엡 2:6)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늘에 있는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피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난 육천 년 동안 정사들과 권세들과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해 세상에 세워진 모래성같은 모든 나라들은 하늘과 땅을 불로 흔드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 주의 주로 오셔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